

《구름》 독서지도안



구름아, 오늘은 또 무얼 만들 거야?

구름과 열두 동물 구름 놀이가 놀라운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 작가_ 공광규 시 · 김재홍 그림
- 출판사_ 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뭉게뭉게 눈같이 흰 구름이 산등성 머리 위로 피어올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흥, 무서운 호랑이를 만들었다가 두 귀를 쫑긋 세운 토끼를 만듭니다. 구름이 하늘에 그리는 그림은 무한합니다. 오늘은 또 무얼 만들까요?

그림책 『구름』은 하늘에 피어오른 작은 구름 한 덩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름을 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물을 떠올려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연에서 시적 감흥을 포착해 시로 탁월하게 담아내는 공광규 시인은, 구름을 보고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문화 속에 함께해 온 열두 동물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진경산수화’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김재홍 화가의 그림이 입체적 상상력을 더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세밑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해 수호 동물인 열두 동물을 통해 운수를 점쳐 보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해 동물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예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열두 동물은 이렇듯 인간과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숙한 동물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동물 모양 구름을 통해 독자가 자연을 좀 더 친근하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더불어 자시(子時), 축시(丑時), 인시(寅時) 등 열두 동물의 시간에 맞춰 변화하는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독자는 자연스레 시간의 흐름을 배우고 나아가 삶의 이치도 깨닫게 될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교과 과정 연계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 1학년 2학기 국어 2.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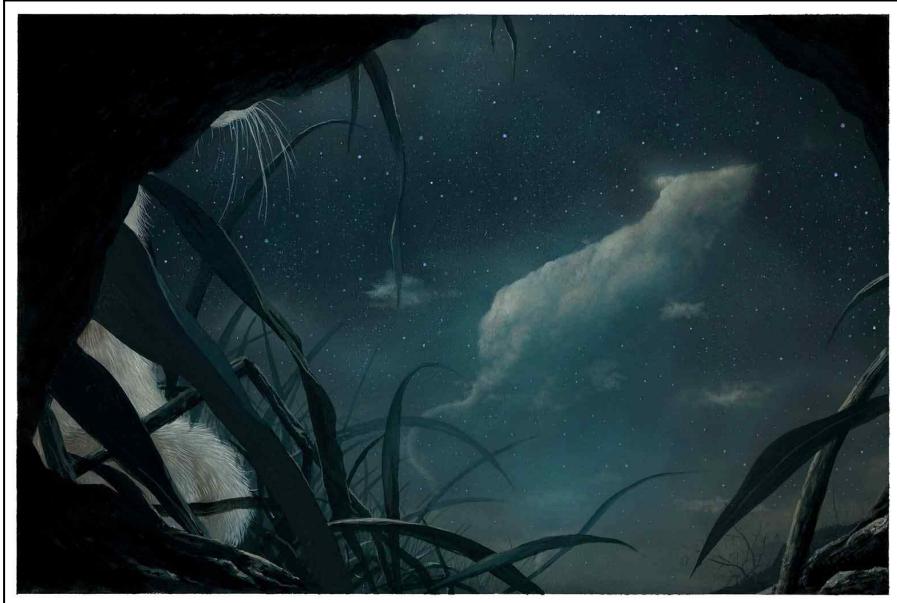
- 지도 요점 :

별이 가득한 밤하늘에 구름 한 덩이가 일어나더니 차례대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책은 우리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동물 모양 구름을 통해 독자가 자연을 좀 더 친근하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었나요? 친구들과 함께 구름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별 하늘에 구름 한 덩이가 일어나 처음으로 만든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 ① 고양이
- ② 쥐
- ③ 사자
- ④ 호랑이



(2) 이 책에서는 구름이 열두 띠 동물을 순서대로 만들어요. 구름은 쥐 다음으로 어떤 동물이 되나요?



- ① 양
- ② 말
- ③ 소
- ④ 뱀



(3) 구름이 토끼가 되자 땅 위에서는 토끼와 함께 달리기 경주라도 하고 싶은 듯 어떤 동물이 목을 빼고 하늘을 바라봐요. 누구인가요?



- ① 호랑이
- ② 원숭이
- ③ 돼지
- ④ 거북



(4) 하늘에는 열두 동물 무엇이 말뚱말뚱 떠 있게 되나요?



- ① 눈
- ② 코
- ③ 입
- ④ 귀



4. 확장활동

(1) 어두운 밤에서 소가 일하러 나가야 하는 새벽이 밝아오고, 상쾌한 아침에서 말이 뛰어노는 한낮으로 이어지다가 어느덧 황금빛 노을이 지며 다시 밤을 맞이합니다. 열두 동물의 시간에 맞춰 하늘의 색이 변화하고 구름도 모양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2) 구름은 열두 동물을 만든 뒤에도 “또 뭘 만들지?” 고민해요. 구름이 또 무얼 만들면 좋을까요?



(3) 하늘을 하얗게 수놓는 구름을 보면 가끔 생각에 빠지진 않나요? 구름을 보고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

책 이해하기

- (1) ② 쥐 | (2) ③ 소 | (3) ④ 거북 | (4) ① 눈

확장활동

- (1) 높은 하늘에 크고 둥글둥글하게 덩어리진 양떼구름은 정말 귀여워요.
서쪽 하늘에 깔린 새털구름이 주황빛으로 물들면 정말 아름다워요. 등
- (2)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모양도 만들면 좋겠어요.
마법 양탄자를 만들어 세계 여행을 다니면 어떨까요. 등
- (3) 구름이 하늘에 계속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름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등